

'부동산 트렌드 쇼'서 새만금 첫 도시 소개

새만금개발청·공사, 새만금 미래도시의 시작점 수변도시 선보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인)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 참가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새만금 수변도시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과 풍부한 분양·지역 개발정보, 최신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비즈니스 기회, 종합 비즈니스 전시 존과 세미나 및 1:1 부동산 컨설팅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수변도시시는 2면적 복합개발용지 내 6.6km²(200만평)의 면적으로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



닌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수요자의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새만금 첫 도시(First City)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지원 특화 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신공함과 신항만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기업지원 도시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도시계획만 설정한 선도복합 투자 조성 등 규제를 완화하여 물류·크루즈 등 관련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공유주택·수변주택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주거 수요를 고려한 주택용지 공급을 통해 주민과 기업종사자가 살기 편한 주거환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전시 부스에서 새만금 현황 및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사업을 소개하고, 필요 시 1:1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 부스 운영으로 새만금 지역에 관심 있는 참가업체 및 내방객 면담을 통해 수변도시 잠재투자자 발굴·지속 관리 등 직간접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인 청장은 "새만금은 국제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업들로 하여금 10조 원 투자유치로 인정받은 곳"이라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수변도시가 기업지원형 신단 배후도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외국 교육기관 유치, 입주기업 대상 주택 특별공급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수변도시시는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수변도시의 첫 분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 전주지부(지부장 하양진)가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했다.

지역 특성 반영한 금융서비스 제공

농협 전주지부, 전주 완주시군지부서 명칭 변경

농협 전주지부(지부장 하양진)가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완주시군지부 위치(팔달로 277, 서노송동 650-5)에서 새롭게 출발한 농협 전주지부(주소: 완주읍 111-1)는 초대 하양진 지부장을 중심으로 고령인특화 상담 창구 운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협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계통 간 상생협력 강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대내외 농정활동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과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양진 지부장은 "전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무한한 영광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면서, "농업인이 행복하게 사는 농업·농촌과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꿈꾸며, 농업인과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원 출신인 하양진 지부장은 전주 영생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1995년 남원시지부에서 첫 발을 내디딘 후 전북본부 상무, 전북본부 농촌지원과장, 경영기획단, 태평동지점장 등을 역임하고 전주지부장에 취임했다.

다양한 사업 부서를 두루 거친 하 지부장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오며 업무 능력은 물론 다양한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사대부고서 등교 학생 대상 아침밥 먹기 캠페인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16일 전주사대부고(교장 홍덕인)에서 개학을 맞아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일 전북농협총괄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홍덕인 전주사대부고 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쌀로 만든 삼각김밥과 식혜 각 800여 개를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농협은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값이 폭락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범 농협 차원의 전사적인 소비촉진 운동 일환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도민 매일 아침밥 먹기 운동 실천과 탄소화물예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8월 18일 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조종달 명창도 함께한 기념 행사·쌀 소비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이해 전주세계소리축제 현장을 찾아 소포장 쌀 나눔 행사와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14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관소리 조종달 명창도 함께 참여해 전주세계소리축제 현장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4년 제10회 쌀의 날을 맞아 2024개의 전북광역브랜드 예담채 심리향미 소포장 쌀을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확대와 쌀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이날 전북농협은 세계소리의 향연인 제23회 세계소리축제에 도정과 함께 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관소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쌀과 밥은 우리 삶의 가장 친숙하고 근본이 되는 단어로 '밥은 먹었나?', '밥 한번 먹자', '니중에 밥 한 번 살게' 등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친숙하고 근본이 되는 쌀과 밥은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수확기 농업인의 근심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농협은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며, 전북농협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쌀 소비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소비촉진 행사, 쌀 가공품 개발 및 판매활성화 등 다양한 쌀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 중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쌀의 날이 쌀의 영인화적 가치와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가온 벼 수확기를 맞아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선제적 전북 쌀 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의 날은 쌀을 뜻하는 한자인 쌀(米)을 한자 여덟 팔(八)자와 열십(十)자로 풀이해 쌀 한톨을 얻기 위해 해선 농부의 손길이 여든 여덟 번 필요하다라는 것에 착안해 2015년 8월 18일부터 제정됐다.

/김옥기 기자

전북 7월 수출·수입 모두 증가... 무역수지 42.2% ↓

올해 7월 전북지역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전주세관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북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도내 지난달 수출은 전월 동월 대비 2.9% 증가한 5억6200만 달러를 수입은 17.7% 증가한 4억84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에 무역수지는 7800만 달러로 42.2% 감소했다.

또 국가별로는 수출은 중남미(39.3%)·EU(26.1%)·중국(7.2%)은 증가하고 미국(26.8%)·동남아(0.7%)는 감소했으며, 수입은 미국(108.0%)·중남미(75.6%)·중국(16.8%)은 증가한 반면 일본(9.5%)·동남아(4.4%)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전북환경청, 토양안심주유소 8개소 운영실태 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토양안심주유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토양안심주유소란 이종벽 구조 유류탱크, 누유 감지 장치 등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를 뜻하며 지난해까지 전북 지역엔 37개소의 주유소가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이번 점검은 신규 지정·실태 점검 5년이 경과한 8개소의 토양안심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확인 내용은 유류탱크·주유기 연결부 등에 대한 누유 여부, 누유감

지·경보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월 1회의 정기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전북환경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지정기준을 벗어난 수준의 시설 변경과 고장 방치 등이 확인됐을 땐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김병석 전북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유류저장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신속한 오염 확인과 정화가 어렵기에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자체 시설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